https://doi.org/10.23073/riks.2025..19.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방향*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김성철** · 강민구***

국문초록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 · 정보 · 인적 자원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 혁신을 요구하며, 문화 갈등 해소와 다문화사회 적응 준비가 다문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어 능력 향상은 이주민 및 다양한 소수집단의 사회 통합과 갈등 최소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의 기반이 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다문화적 관점의 한국어 교육과 교육기관이 양적 · 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초 · 중등 이주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공교육 내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교육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주민과 그 2세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을 고찰한다.

핵심어 다문화사회, 한국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기관, KSL 교육과정

차례

1. 서론
2. 국가적인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3.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4.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5. 결론

1. 서론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다문화사회' 또는 '지구촌'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등으로부터 결혼이민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제의 시행에 따른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및 유학생, 난민 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고,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

* 이 논문은 대학교 2025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제 1저자)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교신저자)

www.kci.go.kr

저치를 기록하고 코로나 이후 농어촌과 산업계의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1]. 행정안전부 발표(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100명당 4명은 외국인 이주민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전체 인구(51,779,203명) 대비 4.3에 해당한다[2]. 2021년 기준, 국내 가장 큰 외국인 집단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452,297명이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총 316,729명, 이주 배경 학생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 160,058명으로 나타났다[3].

다문화사회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는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언어문화 갈등을 일소하고 다문화사회에 적응하는 준비를 다문화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다문화 교육이란 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며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의력을 구현하고 새로운 문화적 조합과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4], 특정 언어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이 구별되는 다른 국가로 이주할 경우 제일 먼저 의사소통능력이 문제가 된다. 실제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외국인에게도 한국어 습득이 그들의 한국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5]. 이주민들의 한국어 능력향상이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집단을 통합시키고 대립과 반목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이해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정책개발 및 예산조달, 실천성의 입증이 필요하다.[6]

1 이성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양서원, 2023, 1~3쪽.
2 장미야, 『다문화와 글로컬리티』, 양서원, 2023, 320쪽.
3 이성순, 앞의 논문, 127쪽.
4 안진숙 외,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의 이해』, 동문사, 2022, 325~327쪽.
5 김성혁 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학지사메디컬, 2021, 102~103쪽.
6 양태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초등교육』 21(1), 서울대 초등교육연구회, 2021, 63쪽.

한국어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한국은 단일 언어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국어를 모어(제 1언어)로 배워서 일생동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표준어만이 한국어가 아니다. 한국의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들도 한국어이다. 따라서 한국어란 표준어를 포함하여 한국의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7].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수적인 자질 또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힘이고, 이주민에게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주요 요소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어를 관습 헌법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시민권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 문화와 전통, 국민적 공감대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이주민 역사에 있어서 어학시험이나 언어교육은 이민의 방해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민과 문화적 다양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최근에는 이주민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간주된다[8].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말하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육과는 구분된다. 한국어 교육은 지역 변인에 따른 국내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 해외의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으로 구분되고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전자의 논의에 제한한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현대적 의미의 첫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진 1959년 이후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면서 대학기관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7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적 관계가 다양화되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도 증가하고 국적도 다양해지며 한국어 교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후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

7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아카넷, 2012, 13쪽.
8 정훈 외, 「다문화사회 소통문제와 한국어 교육의 과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다문화교육연구회, 2010, 451~452쪽.

www.kci.go.kr

는 동안 국내 유학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다수의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의 양적 향상과 질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들어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이 대거 입국하고, 1980년대 말부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한국 정착, 사회적응 교육 그리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육 등 이주민 교육복지정책이 새롭게 대두되었다[9]. 국제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미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 전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한국어 수준으로 그들이 장비 조작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최근 일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전공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체계적인 한국어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 학습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10])교육, 한국 사회문화 이해프로그램 등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초/중등 학령기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2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공교육 내에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토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11]. 이들에게 한국어는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중심적 언어이며 한국어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중도입국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 한국어 문식력, 한국문화 및 학교 문화이해가 부족하여 친구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학습능력이 한국어 문제로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12].

본 논문은 한국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가족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KSL 교육과정 등을 알아보고, 특히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가적인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현재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산부 등의 예하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련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사 파견 및 초청 연수사업, 한국어 교사 자격증 발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 등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리한다. 문화체육부 산하의 또 다른 기관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한국어 세계화 체계 마련, 한국어 교사 인증, 한국어 교육 기초자료 축척, 국제학술대회 주관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아래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있다. 국립

9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 학지사, 2023, 313~315쪽.

10 제1언어 습득(First Language Acquisition)은 사람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모국어 습득을 의미한다.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모국어 외에 추가로 배우는 언어로, 사회생활과 진학, 취업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포함한다. 한국어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외에도, 외국에서 배우는 외국어(KFL)와 재외동포 대상 유산 언어(KHL)로 구분된다. 특히 KHL은 단순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고유한 정신과 문화유산, 민족적 자부심의 계승을 의미한다.

11 장인실 외, 앞의 책, 312~314쪽.

12 김성혁 외, 앞의 책, 376쪽.

www.kci.go.kr

국제교육원에서는 재외한인 교육, 해외 한국어학과 전공자 초청, 한국어 교육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하고 201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국 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를 선발/파견한다. 외교통상부 산하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국제적인 친선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해외지역 모임 활성화, 한국어 교사양성 교육을 위한 기초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어 연수생의 선발과 초청을 담당하는 일과 한국 언어문화교육 봉사단을 파견하며,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외 한글학교 및 재외동포 모국 연수를 지원한다[13].

정부 부처 산하의 국내 다양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은 초기 교육환경 조성부터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개설되는 한국어 교육,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등이 있다. 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를,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14].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 연세대학교에 설치된 한국어학당이 한국어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도 10여 개에 불과하던 한국어 교육기관은 현재 기관 규모, 수, 교육프로그램 유형에서 매우 다양하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자신의 교육수요에 걸맞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온전히 한국어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학 연수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거나 전공 과정 유학생의 대학 수학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 수업에 덧붙여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각 기관은 자신이 속한 대학의 운영 방향에 따라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행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정규 학과목의 하나로 학점을 부여한다[15]. 한국어 정규과정은 대부분 1년 4쿼터 과정이며 초급단계(1-2급), 중급단계(3-4급), 고급단계(5-6급)로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 급마다 10주 200시간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유급제도를 시행한다. 대학 교육기관은 최근 정규교육과정 외에 2011년부터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통과한 유학생만이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과 교환학생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기관이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한국어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여러 직종의 다문화 강사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한다. 외부위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9월 선도대학(Active Brain Tower: ABT)이 있다. 전국의 20개 대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칠 다문화 강사를 육성하고 2009년에는 한국어 시범교육을 주도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한국어 교육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민여성,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전문가그룹, 난민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누구나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

13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아카넷, 2012, 14~15쪽.

14 조항록,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한글파크, 2019, 101쪽.

15 남부현 외,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2019, 161~164쪽.

www.kci.go.kr

(www.socinet.go.kr)에 가입하여 한국어 교육에 등록할 수 있다[16].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적응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 재한외국인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KIIP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체류 및 영주자격, 국적취득 필기시험 및 면접 심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17].

한국어 수업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0단계 기초(한국어와 한국문화, 15시간), 1단계 초급1(100시간), 2단계 초급2(100시간), 3단계 중급1(100시간), 4단계 중급2(100시간),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 50시간)로 총 46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강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별표1의 이수자로서 정부 기관 또는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험 500시간 이상의 이력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이력에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의 수료자 등이다[18]. 2012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복지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기관의 수가 크게 늘어서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395개소에 이르고 있다[19].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고유교재 개발, 교원역량, 교수법 등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종래의 사전평가와 종합평가에서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평가기능을 살리려 노력하였다[2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조사→교육목표 설정→교육과정 개발→교육 자료/교수법 개발→교원양성 등과 같은 기본 절차를 이행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효율성,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민자와 함께 열어가는 개방 사회 구현,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 다문화 수용 및 사회통합이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전문기술인력이나 고숙련 공학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시/구/군/읍/면 등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 12조에 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국제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주요 참여 대상인 집합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을 시행한다. 방문서비스는 한국어 강사가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언어문화 및 체계적,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 중도입국 자녀 교육과정, 한국어 심화 과정(특별반)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정규과정은 1~4까지 네 단계로 단계마다 100시간으로 구성된다, 클래스 배정을 위한 배치평가와 교육과정 이수 후의 성취도 평가가 있다. 정규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중간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어 강사의 자격 조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와 상응하며, 다만, 방문교육 교사의 경우에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 강의 경력이 12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는 이수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예산과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6 조항록, 앞의 책, 107쪽.
17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www.socinet.go.kr
18 조항록, 앞의 책, 111~112쪽.
19 남부현 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양서원, 2019, 161~167쪽.
20 조항록, 앞의 책, 107~108쪽.
21 위의 책, 42~45쪽.

www.kci.go.kr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에 참석한 국적 집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높다.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의 참여율은 국제결혼이민자의 여권 소지자, 방문 동거인, 영주권자, 방문 취업자 등의 순서이며 특히 국적취득을 원하는 국민 배우자 참여가 눈에 띈다[22]. 국제결혼이민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참여비율이 낮은 원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적취득, 영주권, 장기체류 등의 민원 처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원칙적으로 이민자로 국내 정착이 현재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덜하고 장시간 노동일에 참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훈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체류 기간이 길어지거나 체류자격의 변동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시한다. 그의 제안은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유창성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장기체류,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방지 등 노동 생활권과 소득보장의 시발점이고 또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3].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된 종합지원기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과 한국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7곳에 센터를 두고 그들의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체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2시간씩 오전/오후 2회 혹은 시간대별로 개설하여 4회 운영하기도 한다. 1년 2회 두 학기의 초급/중급 한국어반 외에도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을 운영한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장, 학습 자료, 예산 등을 먼저 마련한 후에 교육생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 자격 기준을 높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는 등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1주 1회 2시간의 한국어 교육은 큰 교육 성과를 내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수업은 물론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외부위탁 교육사업, 다문화 전문가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주요 교육대상자로 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의 국가적인 교육기관은 국립국어원이나 교육계와 학계의 교육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한국어 교육 기반시설 확충,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만 강사 선발 제한 및 교원연수, 수준별/직능별 교재개발과 평가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한국어 교육 클러스터의 조성과 교육 평등권의 확대 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4].

3.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문화적 다양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22 이화숙 외,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한국어교육학회, 2013, 293~299쪽.

23 정훈 외, 앞의 책, 466~469쪽.

24 조항록, 앞의 책, 115~122쪽.

www.kci.go.kr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적 배경이 다른 소수집단이 우리 사회 속에 적응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우리말 교육이 제일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을 동시에 접하게 된다. 언어교육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게 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적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드러난다[25].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한 비율은 37.9%로 2018년 29.9%보다 8.0% 증가하였으나 한국 생활에서의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2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144,616건 가운데 언어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이 24,355(16.8%)건으로 밝혀졌다[26].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인으로부터 차별당하는 주요 원인은 언어소통 부재에 기인한다.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된 2007년 베트남 출신의 후안마이 사건과 2010년 탓티황옥 사건 또한 부부 의사소통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 미숙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존칭어 사용이나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화를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적 체벌이 더 앞선다. 한국어 실력이 낮은 경우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낯설고 자녀의 학업수준과 학습활동 적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또 국제결혼이민여성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무시, 조롱, 폭언 등의 주원인은 대개가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발생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는 외국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이중언어 자료 등은 국제결혼이민여성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직장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28].

방성원에 의하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기초로 국제결혼이민여성이나 자녀가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장기체류 외국인 어머니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자모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한국어의 낯선 발음과 문자를 동시에 새롭게 습득하기 때문에 KSL 교육은 일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기초 단계에서 실시하는 자모 교육과 유사하다. 가정 내 자녀 육아 및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하기에 일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보다 국제결혼이민여성에게 자모 교육의 필요성이 훨씬 더 강조된다. 학습 자체 목표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취업까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자모 교육의 단계에서 발음 및 쓰기의 정확성 향상은 물론 문식성 능력, 정보화 능력, 한국문화의 이해능력 기초를 다지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문자로서 모음, 자음, 받침, 음절 구성의 학습을 통해 문자 학습과 발음 학습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제결혼이민여성은 한글 학습 단계부터 정확한 쓰기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반듯하게 글씨를 쓰도록 베껴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는 쓰기 능력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모 교육단계에서 획순에 맞게 쓰기, 반듯하게 쓰기 등의 연습을 충분히 수행하면 학습자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29].

국제결혼이민여성은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지정기관에 개설된 한국어 집합 교육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이래 5년 미만의 국제

25 위의 책, 75~76쪽.
26 이성순, 앞의 책, 109쪽.
27 김성혁, 앞의 책, 109쪽.
28 위의 책, 157쪽.
29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9, 109~110쪽.

www.kci.go.kr

결혼이민여성과 자녀, 만 18세 이하 중도입국 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 기회를 얻는다. 한국어 방문교육의 경우 한국어 강사 또는 멘토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1대 1 수업이나 또 남편 또는 자녀가 함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시간 대비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이래 5년 미만의 자로 한정된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하여 신청 기간을 넘기거나 가족들이 교육을 반대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또 국제결혼이민여성은 EBS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 한국어 방송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은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과제를 의사소통으로 진단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민들의 한국어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참여율은 51.8%이다. 한국어 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이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이고, 학습 효율성의 증진방안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원연수, 연계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30].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최대의 이주민 집단이다.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받고 싶은 교육과 지원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9.1%)이 가장 높다. 최근 1년간 받은 교육지원 서비스는 없음(46.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한국어 교육(28.4%),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15.3%) 순이다(통계청, 2021). 2020년 논산시 외국인 실태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으로 한국어 교육정책(53.3%)이 역시 가장 높다. 한국어 능력이 한국에서의 불편하지 않은 일상생활, 직무역량 그리고 임금수준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귀국 후 취업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 취업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입국 전에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응시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참가의견과 기대가 크지만, 입국 후의 교육 연계는 부족한 실정이다[31],

시/군 단위 원격지 산업공단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시간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교육에 통상적으로 참여가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만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에 개소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는 외국인복지센터, 혹은 그 외의 종교단체, 민간지원단체, 교육청, 평생교육원, 대안학교 등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환경 인프라의 확충과 자원봉사의 참여와 지원이 더 필요하고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한국어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권역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열거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이나 외국인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한국어 교실의 상시적인 운영이 요구된다[32].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의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과정/연구 과정을 포함 그 외의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 연수생까지를 망라한다[33]. 그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유학생으로서 언어의 장벽은 높다. 유학생이라는 배려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수업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마다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다양한 자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또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30 김성혁 외, 앞의 책, 104쪽.

31 이성순, 앞의 책, 146~147쪽.

32 위의 책, 149쪽.

33 위의 책, 237쪽

www.kci.go.kr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어 능력 확장에 도움을 준다. 글쓰기나 듣기 능력향상을 위한 과외 수업,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언어교환 프로그램, 유학생과 국내 학생의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 글로벌센터의 학업 도우미 프로그램, 주변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맺기, 같은 국가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 등이 한국어 의사소통과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다.

최근 학부보다 학위과정 유학을 선택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152,281명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20,018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대비 78.8%을 차지한다[34]. 외국인 유학생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서 초현대적 지식과 정보, 첨단기술, 거대자본을 이동시키는 주체이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소개하고 서로 연결하는 중재자이다[35]. 유네스코는 기본적으로 유학생 대상 언어문화 교육부터 취업 및 진로에 이르는 여러 지원방안을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은 주요한 한국어 성인 학습자이다. 그들이 한국 다문화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를 습득하여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청 및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더욱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 유연한 교육 일정과 학습방식을 제안하고, 우수한 학습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세우는 등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4.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이주 배경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에 근거하여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자녀를 포함한 개념이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의 정체성과 출신성분은 다양성이 크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 혹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국제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데리고 온 자녀, 미혼인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혼인하여 태어난 아이 등이다. 이 외에도 부모의 유학이나 직장, 사업으로 외국에서 성장하다 돌아오는 한국인 자녀들, 단기 체류 과정에 있는 외국인 자녀도 늘어나고 있다[36]. 2021년 기준 이주 배경 학생의 학령인구의 현황을 보면, 전체 160,058명 중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가 122,093명(76.3%),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자녀가 9,427명(5.9%), 외국인가정 자녀가 28,536명(17.8%)임을 알 수 있다[37]. 출생지와 정체성, 문화환경이 다르고 한국어 능력도 각기 다른 이주 배경 학생 대상 입학 전 예비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교생활 적응 및 성공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주 배경 학생 등을 위한 초/중등 공교육 기반 조성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2년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의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교육 현장에서 초/중등 『표준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고,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가 연이어 개발/배포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된다. 한국어 과목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려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일상생

34 위의 책, 242~243쪽.
35 김성혁 외, 앞의 책, 92쪽.
36 이형화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이해』, 공동체, 2015, 36~37쪽.
37 이성순, 앞의 책, 263~264쪽. 전체 학생 수(5,332,044명) 대비 이주 배경 학생은 3.0% 비율.

www.kci.go.kr

활과 학교 언어문화에 잘 적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로 여러 교과의 학습을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장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교과부, 2017).

2017년에 새롭게 고지된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은 생활 한국어(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BICS))와 학습 한국어(Conig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의 이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문화교육 요소를 강화하였다[38]. 또 부록에 어휘와 주제 목록 등 언어재료를 강화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 배경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등을 위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진단평가 등 평가 문항 개발, KSL 교원연수 및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은 물론 학습자별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을 통해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39]. KSL 교육은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학교생활 문화, 한국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한국어 그리고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어로 심화된 학습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학업 문식성,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 자아 정체감을 키우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40].

KSL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이주 배경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맘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KSL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방과 후 학교, 방학 중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주말 학교를 운영한다[41]. 한국어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어 학급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이주 배경 학생이 5명 이상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별도 학급을 개설하였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유아가 다수 재학하는 다문화유치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별도 학급을 지원한다. 한국어 학급은 2017년 179학급, 2018년 223학급, 2019년 326학급, 2020년 372학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건상 한국어 학급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들이 편입할 때는 인근 학교의 한국어 학급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강사가 한국어 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제들을 계속 개발하여 현재 초/중등 교육용으로 17종의 교제를 출판하였다[42].

2017년 이후에는 한국어가 서툰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모국어 멘토링을 운영하고,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시스템(2019년)이 구축되었다. 교과부는 중도입국 이주 배경 학생 대상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원격콘텐츠 및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과 협력하여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 한국어 학급 관리자와 담당 교직원 대상 교원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이해 제고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다[43].

38 장인실 외, 앞의 책, 315~318쪽.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2017 개정 한국어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구분		생활 한국어교육	학습 한국어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주제	· 일상 기반	· 일상 및 학업 기반	· 교과 기반
	의사소통 기능	· 일상 기반	· 일상 및 학업 기반	· 교과 기반
	어휘	· 일상생활 어휘 · 학교생활 어휘	· 교실 어휘 · 사고도구 어휘 · 범용 지식 어휘	· 교과별 어휘
	문법	· 학령 적합형 교육 문법	· 학령 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 구어 중심	· 구어 및 문어	·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수용		

39 위의 책, 315쪽.

40 원진숙,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정책」, 『우리말연구』 39, 우리말학회, 2013, 43~44쪽.

41 원진숙, 앞의 논문, 40~41쪽.

42 장인실 외, 앞의 논문, 121~122쪽.

43 이성순, 앞의 논문, 272~274쪽.

www.kci.go.kr

출신국, 정체성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또 한국어 수준이 천차만별인 이주 배경 학생, 외국인, 해외에 오래 체류하다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귀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교육에서 폭넓은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대상별/수준별 맘춤형 교육 방향에 역점을 두고 방과 후나 주말 한국어 교실운영, 한국어학습 도우미 및 방문교사 제도 등을 보다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다양성과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장기체류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를 넘어 이민 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성은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중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한국어 소통과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국제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일터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고로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언어 결손이나 교육 부적응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 또한 가족 내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있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언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복지정책이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과제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핵심은 상호 이해와 소통이다. 특히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그 자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언어·문화·역사를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한국어 교육을 주관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출석률 저조, 낮은 교육 효과, 획일적인 교재와 교수법, 교원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보다 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언어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도전이 요구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구정화 외,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정민사, 2021.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9.
김성혁 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양서원, 2021.
김억순 외,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김은미 외,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10.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2012.
남부현 외, 『다문화사회 교육론』, 양서원, 2019.
문경식 외, 『다문화 교육의 탐구: 다섯 가지 방법들』, 아카데미프레스, 2009.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공편,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아카넷, 2012.
안경식 외,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9.
안진숙 외,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동문사, 2022.
원진숙,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정책」, 『우리말 연구』 39, 2013.
이성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해』, 양서원, 2023.
조항록,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한글파크, 2019.

ABSTRAC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Kim, Sung-Chul/Kang, Min-Gu | Sehan University

As global mobility intensifies, societies are evolving into borderless multicultural communities, prompting a shift in perspectives on multiculturalism and a need for educational reform.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ys a vital role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y groups, contributing to national cohesion an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Korea has expanded its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2012, official curricula for immigrant-background students have been introduced in public edu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and examines its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context of a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Language, Kore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stitutions, KSL Curriculum

www.kci.go.kr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